



2020년 8월 30일(제997호) 연중 제22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Behind me!(나 뒤로 틀리나리)”

오늘 복음 속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스승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데,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격양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신을 걱정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니. 이견 호통을 넘어서서 저주에 가까운 말처럼 들립니다.

“내게서 물러가라.”라는 대목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Behind me.”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여정을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라라.”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때로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베드로가 앞서 예수님께 보여준 모습이었기에 호통을 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 맘이 편하고, 세상과 덜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명예보다는 겸손을 택하며, 부유함보다는 가난함을 택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기보다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지 않고 부와 명예, 권력을 지향하는 삶은 예수님을 앞서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택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느님 대전으로 나아갈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며 따라야 합니다.



김경욱(미카엘) 신부  
희상대(10진비전)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예레 20,7-9  
**회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시** 로마 12,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태 16,21-27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한덕운 토마스



성인명: 한덕운 토마스 (韓德運 Thomas)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752-1802년

충청도 홍주 출신인 한덕운 토마스는 1790년 10월에 윤지충 바오로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바로 그 이듬해 윤 바오로는 신해박해로 체포되어 전주에서 순교하였다. 그럼에도 한 토마스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나갔다.

그러던 가운데 한 토마스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그는 성사의 은총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주 야고보 신부를 만나려고 하였지만, 끝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1800년 10월 한 토마스는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나 경기도 광주 땅에 속한 의일리(현,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기도와 독서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만 열중하였다. 그는 신자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이럴 때면 그의 말은 언제나 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굳건하고 날카로웠다고 한다.

이듬해 초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한 토마스는 옹기 장사꾼으로 변장을 한 뒤 한양으로 올라가 보기로 작정하였다. 교회와 교우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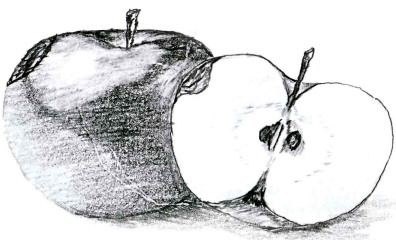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 청과동에 이르렀을 때, 한 토마스는 거적으로 덮여 있는 흉악민 루카의 시신을 보게 되었다. 이때 그는 놀라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 시신에 애도를 표하였다. 그런 다음, 그의 아들인 홍재영 프로타시오를 보고는 부친을 따라 함께 순교하지 못한 것을 엄하게 질책하였다. 홍 프로타시오는 그 뒤 다시 신앙을 되찾아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다가 1839년에 순교하였다.

한 토마스는 서소문 밖에서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 주기도 하였다. 사실 박해 상황에서 신자들의 시신을 돌보아 준다는 것은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한 토마스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갔고,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밀고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옮겨져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상처



한 부분이  
썩었다 하여  
사과 전체를  
버려서야 되겠는가.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그만이지.  
그렇게  
님께서 나를  
새롭게 쓰셨지.

상화이야기

예언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와 악한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파멸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이러한 예언으로 인해 심한 박해를 받았다. 예레미야서 9장에 “내가 산을 두고 울음과 곡을 터뜨리고 광야의 목초지를 두고 애가를 부르리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예레미야는 흔히 “흐느끼는 예언자”라고 불리는데, 그가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행실을 개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에서도 심각한 생각에 잠겨 우울한 표정이나, 혹은 울부짖으며 개탄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표현하기도 한다.

미켈란젤로, 1508년 ~ 1512년 제작  
 프레스코화, 390 × 380cm  
 로마, 시스티나 경당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경당에 최후의 심판과 함께 7명의 구약성서 예언자를 그려 넣었는데, 이 중에 예레미야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미술사학자는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며, 자신의 죄를 한탄, 속죄, 혹은 묵상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모태에서 나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예레 1,5)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22주일: 지운대 현평심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곳: 9월 1일(화) 10:30, CBCK

◆ ‘군중의 시집’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